

“갈라쇼 보러 오세요”

손연재, 10월 국내서 리듬체조 연기

카나에바 등 세계적 스타 참가할 듯

“10월 초에 갈라쇼에서 국내 팬들께 다양한 모습을 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보러와 즐겨주세요.”

2012 런던올림픽 리듬체조에서 한국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에 진출해 5위에 오른 ‘요정’ 손연재(18·세종고)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휠라(FILA), 손연재 후원 협약식’에 참석해 앞으로의 일정을 설명했다.

지난해 예브게니아 카나에바, 다리아 드 미트리예바(이상 러시아) 등 세계 특급 선수들과 함께 국내 첫 리듬체조 갈라쇼를 성황리에 마친 손연재는 10월 6~7일(예정) 갈라쇼에서 다시 한번 연기를 펼치기로 했다.

갈라쇼의 전체 규모와 라인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아직 장소와 프로그램, 초청 선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라인업은 올림픽에 출전했던 선수들 위주로 꾸려질 예정이다.

손연재는 “국내 팬들께 선보이는 무대니 어느 때보다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실제로 보는 것과 TV에서 보는 것은 다르니 많이 보러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지난 27일 텔레선수촌 대표팀 훈련에 합류한 손연재는 발목이 좋지 않아 가벼운 운동과 통원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큰 부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올림픽 때 경기에 임집중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한국에서 쉬면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후프와 볼에서는 지난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했던 종목을 일부 수정해 올림픽에 나섰고, 곤봉과 리본은 올해 초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손연재는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는 대학을 선택하고 싶어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차근차근 밟았다고 생각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팀 체조선수 손연재가 29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훨라 코리아 후원 협약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극소녀들 日 넘어 4강 간다

U-20 여자 월드컵 오늘 8강 한·일전

전은하·다니카 에이스 대결



드컵을 시작으로 청소년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해온 불박이다.

그동안 선배들 뒤를 받치는 역할을 했던 전은하는 이번 대회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과시하며 팀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B조 조별리그 이탈리아와의 2차전 때는 후반 추가골로 한국의 2-0 승리에 쐐기를 박았고 브라질과의 3차전(2-0 한국 승)에서도 ‘원사 원킬’에 가까운 결정력으로 후반에 두 골을 몰아쳐 한국의 8강행을 이끌었다.

일본의 다니카는 일찌부터 팀의 ‘주포’로 자리 잡은 선수다.

전은하와 같이 2008 U-17 월드컵 때부터 대표로 나선 다니카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 때 주목받은 데에 비해 전은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주연으로 발돋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

전은하는 그동안 선배 지소연(21·아이나 고베)이나 같은 또래 여민지(19·울산화학)에게도 가려졌지만 2008년 뉴질랜드 U-17 월드컵에

김정미는 2010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대회에서 4골을 터뜨려 가능성은 입증했다.